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5면)

이원우 송파구의원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평화공헌 부문 개인상 수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통일 인식 확산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이원우 의원이 지난 7일(수)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평화공헌 부문 개인상을 수상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세계일보 조사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평화공헌과 사회통합 등 2개 부문에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의원은 평화공헌 부문에서 그간의 활동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2005년 통일문화포럼을 결성한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산가족 동영상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써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